

회의산업(Meeting & Convention)

참가자 소비 변화 분석

(2019년 vs. 2023년 비교)



본 자료는 MICE 산업의 동향 분석을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엔데믹 이후 본격 회복을 시작한 2023년의 Meeting & Convention 참가자의 소비 변화를 분석한 자료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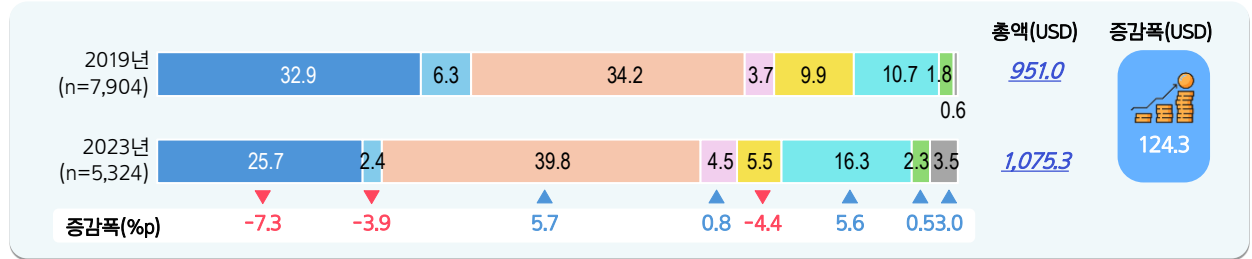
자료 출처: 2019년, 2023년 MICE 참가자 조사(한국관광공사)

2023년 Meeting & Convention 참가자의 평균 소비액은 USD 1,075 수준으로,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USD 124 상승한 수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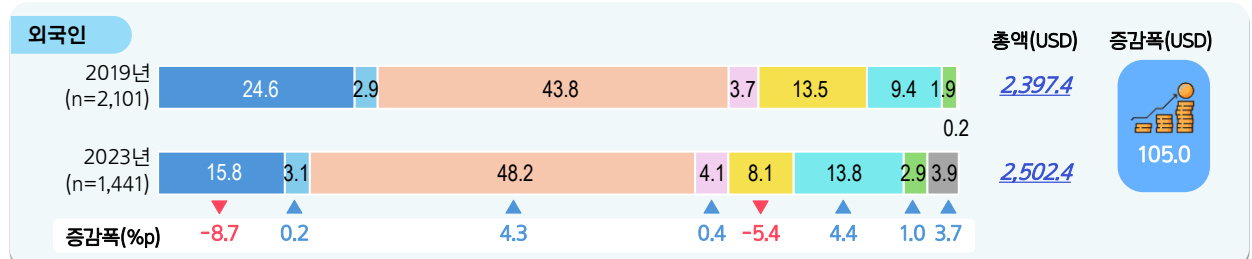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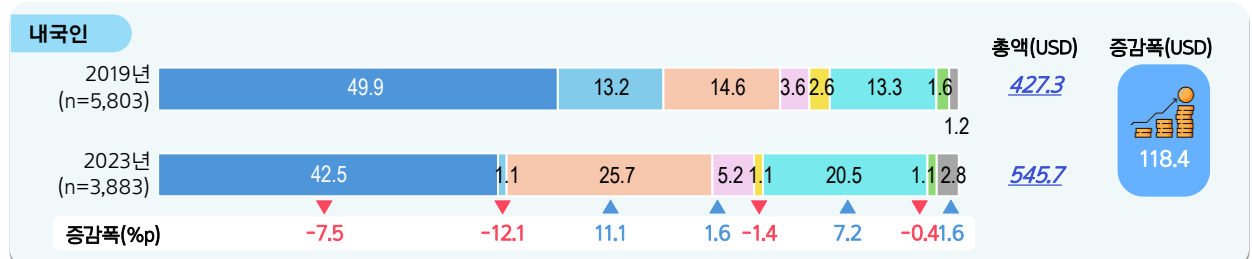
- 전체적 숙박비(39.8%) > 등록비(25.7%) > 식음료비(16.3%) 항목의 소비 비중이 높으며, 숙박비 및 식음료비의 증가폭이 보다 높고, 등록비/쇼핑비/관광 프로그램 참여비의 감소폭이 보다 큰 편임
- 내국인은 등록비(42.5%), 외국인은 숙박비(48.2%) 소비 비중이 40% 이상을 차지하며, 등록비 외에 내국인은 관광 프로그램 참여비, 외국인은 쇼핑비의 감소폭이 큰 편임

■ 등록비 ■ 관광 프로그램 참여비 ■ 숙박비 ■ 현지 교통비 ■ 쇼핑비 ■ 식음료비 ■ 관광 활동비(관광/문화/스포츠/유흥) ■ 기타

01 전체 (%)



02 국적별 (%)



주) 본 자료는 '장거리 교통비'를 제외하고 분석함

[참고] 외래관광객 쇼핑 행태 변화: 쇼핑 활동의 감소

문헌 조사

[방한 외래관광객의 쇼핑 참여 비율]



* 출처: 2019년, 2023년 외래관광객조사, 한국문화관광연구원

['쇼핑' 대신 한국 문화 전반으로 방한 외래객 여행 목적 변화]

▶ 쇼핑보다는 K-팝, K-콘텐츠, 전통문화 등 문화 향유 트렌드 확산

- 방한 외국인의 여행 목적이 '쇼핑'에 집중되었던 과거와 달리, 엔데믹 후 방한 외래관광객의 여행 목적은 K-팝, 고궁 체험 등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임

* 출처: 아주경제, "'쇼핑보다 K팝이 좋아요' 방한 여행 지형도 '확' 달라졌다", (2023.10.17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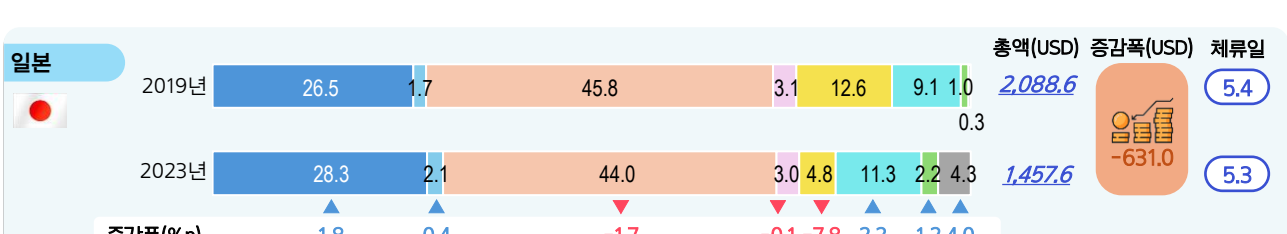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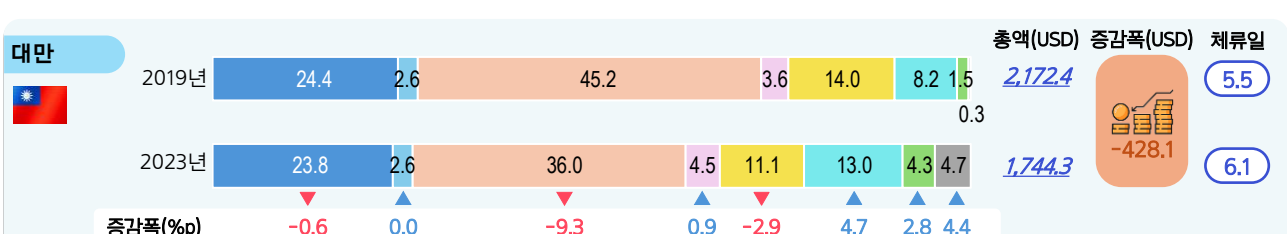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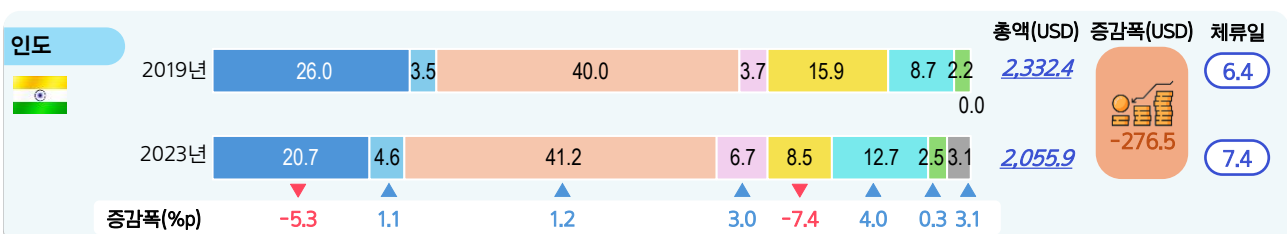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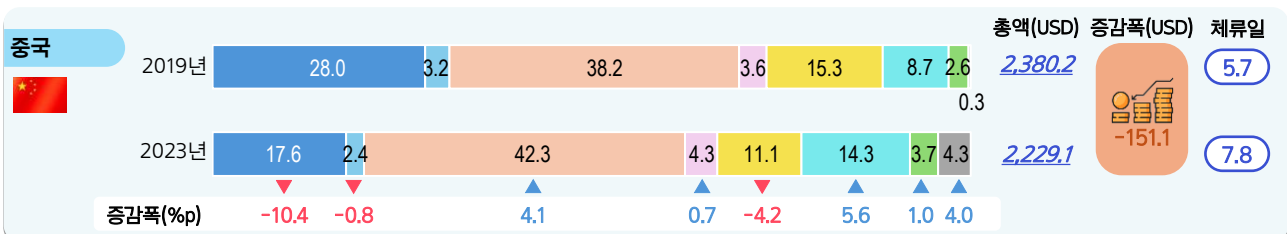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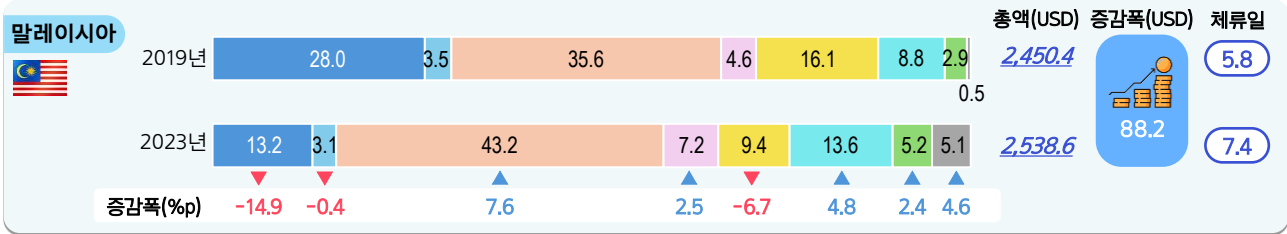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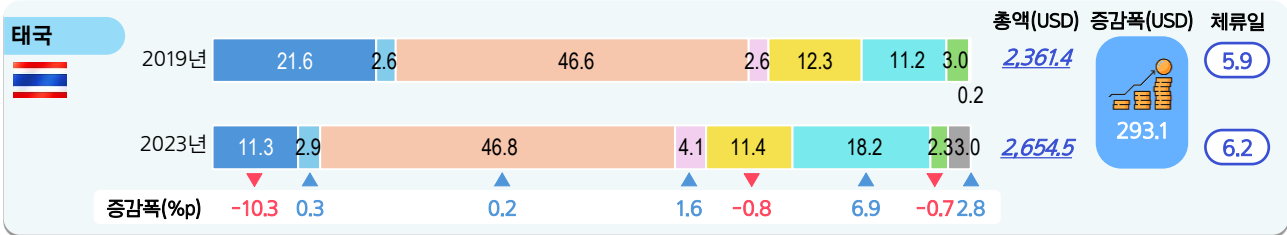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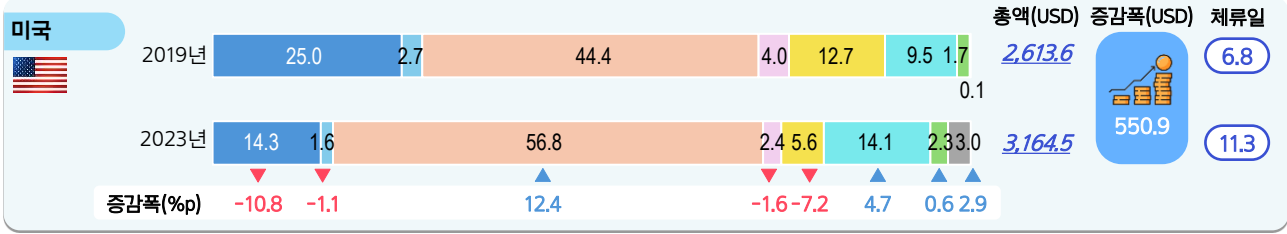


국적별로는 미국(USD3,165)의 평균 소비액이 가장 높고, 다음으로 태국(USD2,655)과 말레이시아(USD2,539)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

- 한편, 일본(USD1,458), 대만(USD1,744)의 평균 소비액은 USD2,00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
- 2019년 대비 미국의 소비액 증가폭이 USD500 이상으로 보다 높는데, 이는 체류기간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의 영향으로 판단됨

■ 등록비 ■ 관광 프로그램 참여비 ■ 숙박비 ■ 현지 교통비 ■ 쇼핑비 ■ 식음료비 ■ 관광 활동비(관광/문화/스포츠/유흥) ■ 기타

03 국적별 분석 (%)



권역별로는 서울(USD 1,835) > 인천/경기(USD 1,353) > 비수도권 (USD 801) 순으로 평균 소비액이 높음

-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, 평균 소비액이 전체 기준 USD 1,200 이상 크게 증가했는데, 이는 체류일수 증가(약 3.3일)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인천/경기 지역은 외국인 참가자의 소비액 증가폭이 큰 반면, 비수도권은 외국인 참가자의 소비액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, 상반된 양상을 보임

04 권역별 분석 (USD)

